

최근 금리동향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과제

부연구위원 최영목
선임연구원 장동식

< 요약 >

- 2007년 12월 14일 현재 국고채 3년물 금리는 5.89%까지 상승하였으며, 시중금리의 상승추세가 지속되고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보험회사의 상품판매와 자산운용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금리연동형상품과 달리 금리확정형상품의 경우 금리상승과 함께 계약자들의 상대적 수익성 악화로 인해 해약률이 상승할 가능성 증대
 - 단기금리 급등으로 인해 장기채권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보험회사의 채권운용수익률이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고, 차주의 이자부담을 가중시켜 대출채권의 연체율 상승 가능성 증대
-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상품과 자산운용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잠재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보험상품측면에서 고금리확정형상품의 판매확대를 자제하는 한편, 시중금리 변동에 유연한 신상품개발 및 서비스 강화가 필요함.
 - 자산운용측면에서 과학적 자산배분전략을 통한 자산운용수익률 제고, 대출채권의 사전적 및 사후적 관리 강화 등의 노력이 요구됨.

1. 최근 금융시장의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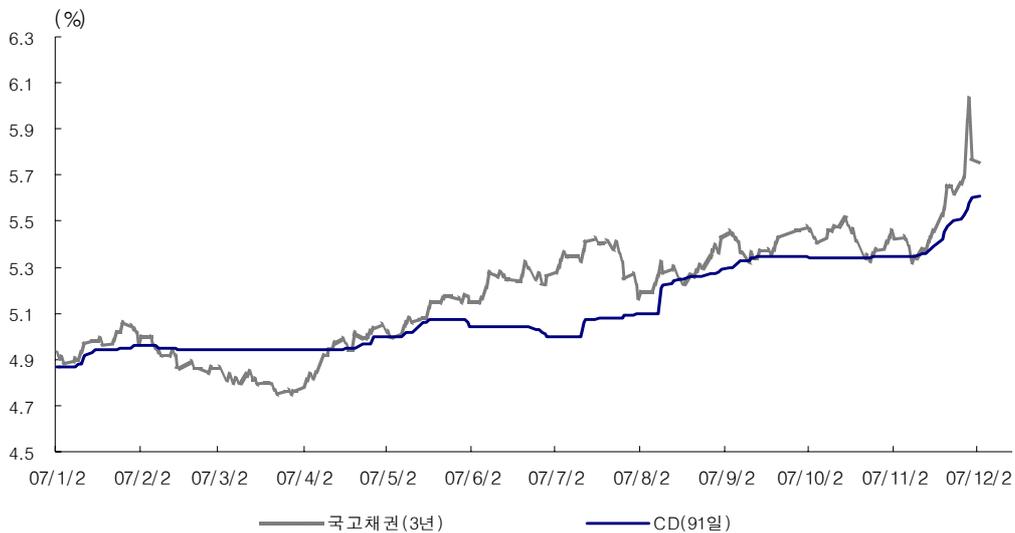
□ 금리 급등 및 변동성 확대

- 2007년 10월 들어 시중금리가 눈에 띄게 상승하기 시작한 가운데

국고채 3년물 금리가 2006년 말 4.92%에서 2007년 12월 14일 현재 0.97%p 상승한 5.89%를 기록

- 최근 시중금리가 급상승한 이유는 시중자금이 펀드로 급격하게 쏠리면서 은행이 자금부족을 메우기 위해 CD와 은행채를 대량 공급했기 때문임.
- 9월 이후 美 정책금리 인하에 따라 금리하락을 예상한 기관투자자들의 국고채 현·선물 매수세가 증가하였으나 시중금리가 오히려 상승 조짐을 보이자 손절매가 급증하면서 금리상승 가속화
- 단기금리(CD91일물)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12월 7일에는 국고채 3년물 금리도 6.11%까지 상승한 후 12월 14일에는 다시 크게 하락하는 등 단기간의 금리변동성이 크게 확대

<그림 1> 최근 주요 금리 추이



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추출하여 작성하였음.

□ 금융시장 불안정에 따른 잠재 리스크

- 한국은행이 11월 30일 1조2천억원을 매입하여 국고채 3년물 금리

가 전일에 비해 0.26%p(6.03%→5.77%) 하락하였으나 이후에는 다시 크게 상승하는 등 채권시장의 불안정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은행권이 자금조달을 위해 CD 및 은행채 발행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 CD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CD금리와 연동된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져 가계의 이자부담 가중
- 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대내외 경제상황이 악화될 경우 기업대출의 부실을 막기 위한 은행의 자금회수가 증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 도산 우려

II. 보험산업에 미치는 제반 영향

□ 보험상품

- 현재의 단기금리(CD91물 금리) 수준을 약 5.5%라고 할 때 예정이율 5%미만인 보험상품에 가입한 계약자들이 상대적인 수익성 악화로 인해 해약할 가능성 증가
 - 금리연동형상품은 금리상승과 함께 예정이율이 변동되므로 계약자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지 않아 해약률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으로 예상
 - 결국, 예정이율 5%미만인 금리확정형상품(전체 생명보험상품의 평균부담이율은 약 6.3%)에 가입한 계약자의 보험상품에 대한 니즈와 개인적인 유동성이 해약률의 증감을 결정
- 예정이율 5%미만인 상품에 가입한 계약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적고 현재의 금리가 예정이율보다 매우 높은 수준은 아니므로 실질적인 해약률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 따라서 최근의 금리상승 수준을 고려할 때 기존 계약을 해약하고 타 금융상품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적을 것으로 예상

<표 1> 예정이율별 보험료적립금 및 평균 부담이율(2007년 3월말)

(억원, %)

구 분	금리연동형	금리확정형	합계
4%이하	8,141	17,039	25,180
4%이상~5%미만	438,957	100,784	539,741
5%이상~6%미만	117,605	140,989	258,594
6%이상~7%미만	9,795	152,506	162,301
7%이상~8%미만	2,001	723,209	725,210
8%이상~9%미만	1,254	122,296	123,550
9%이상~10%미만	187	21,128	21,315
10%이상	101	8,990	9,091
계	578,041	1,286,941	1,864,982
평균부담이율	4.75	7.03	6.32

□ 자산운용

- 금리상승으로 인해 장기채 위주로 매입하는 보험회사의 채권운용 부문에서는 장기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나 단기적으로는 평가손이 발생
 - 금리가 상승할 경우 장기채권을 만기보유하는 입장에서는 고금리로 미래 현금흐름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확정고금리 보험상품의 판매비중이 큰 보험회사의 채권운용에 긍정적 영향
 - 단기금리가 급등하면 채권가격의 하락폭은 단기채권보다 장기채권이 크기 때문에 장기채권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수익률이 하락
 - 다만, 금리연동형상품에 매칭되는 채권운용을 단기매매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회사에 국한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투자

수익률 하락이 적을 것으로 판단

- 여신건전성의 지속적 관리로 대출채권의 부실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금리상승 추세는 차주의 이자부담을 가중시켜 연체율 상승 가능성 증대
 - 2007년 9월 말 현재 생보사와 손보사의 대출채권 총계의 연체율은 각각 4.56%와 3.02%이며 보험약관대출금을 제외하면 각각 2.27%와 1.81%로서 손보사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지속적인 관리에 힘입어 연체율이 낮은 수준이지만 금리상승에 기인한 불량채권 발생 가능성은 증대

<표 2> 보험회사 대출채권 연체현황(2007년 9월)

(단위: 백만원, %)

구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금액	연체율	금액	연체율
대출채권 총계	57,545,291	4.56	10,968,104	3.02
콜론	1,890,124	0.08	358,800	0.00
보험약관대출금	25,801,496	5.11	3,010,458	4.42
유가증권담보대출금	235,212	1.88	38,974	9.17
부동산담보대출금	14,506,365	1.50	5,047,009	2.43
신용대출금	10,687,637	2.74	709,371	0.41
어음할인대출금	13,000	0.00	0	0.00
지급보증대출금	263,403	3.59	226,252	2.62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 홈페이지

□ 변액보험

- 은퇴 후 소득 마련을 위한 투자형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FY2005 이후 주식시장 상승에 힘입어 투자형 상품인 변액보험의 판매가 크게 증가
- 생명보험의 전체 수입보험료에서 변액보험의 수입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FY2002에 0.4%에서 FY2007 9월말 현재 23.0%까지 높아

진 상태

- 채권투자의 비중이 큰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자본시장에 전가하는 변액보험의 판매비중이 증가할수록 금리리스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효과 존재
- 최근 채권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인해 펀드간 수익률 격차가 커짐에 따라 운용수익률이 저조한 펀드의 해약률 및 계약자 민원이 증가할 가능성 증대

<표 3> 변액보험 판매 추이

(억원, %)

연도	변액종신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설	기타	변액전체
FY2001	70 (0.0)	-	-	-	70 (0.0)
FY2002	1,976 (0.4)	-	-	-	1,976 (0.4)
FY2003	2,485 (0.5)	4,699 (0.9)	-	437 (0.1)	7,621 (1.5)
FY2004	7,633 (1.4)	10,001 (1.9)	-	6,155 (1.2)	23,789 (4.4)
FY2005	3,336 (0.5)	39,418 (6.4)	37,128 (6.0)	3,940 (0.6)	83,822 (13.6)
FY2006	3,302 (0.5)	50,421 (7.6)	56,295 (8.5)	5,260 (0.8)	115,278 (17.4)
FY2007. 9	1,663 (0.5)	38,184 (10.9)	38,018 (10.8)	2,745 (0.8)	80,611 (23.0)

주: 수치는 수입보험료이며, 괄호 안은 생명보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각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III. 보험회사의 대응

- 보험영업 측면에서는 현재의 금리상승 수준과 미래 금리 추이의 예측을 통해 예정이율이 적절히 반영된 신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신계약 감소에 대응하고 기존계약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강화
- 또한 양적성장을 위한 무리한 고금리확정형상품의 판매 확대를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

- 투자영업 측면에서는 만기보유 채권과 단기매매 채권의 자산배분 비율을 조정하여 일시적인 금리변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평가 손실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채권운용
 - 또한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금리상승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자금 유동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연체율이 증가할 수 있는 대출채권의 사전적 및 사후적 관리 강화

- 변액보험의 경우 과학적인 기준에 의해 펀드 운용사를 선택하고 사후적으로는 운용사의 컴플라이언스 의무 이행을 철저히 감독
 - 또한 변액보험 판매인력을 대상으로 투자형 상품으로서의 특성과 법규리스크 등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 강화